

# style H



SUMMER  
BREAK

JULY 2022, ISSUE NO. 210



# New Entryway

국내 인테리어 시장이 팬데믹 이전 대비 비약적으로 성장해 매출 60조 원을 기록했다. 더불어 중요성과 기능이 부각된 현관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진 상황. 3인의 전문가가 리빙 키워드에 맞춰 현관 스타일링 팁을 전한다.



Interior Design - Lisa Schmitz Interior Design Photo - Dallas & Harris Photography

크고 높은 유리 소재 현관문을 배치해 개방감을 더하고 창밖 풍경과 연결되도록 연출한 우드 계열의 현관 리사 슈미츠 인테리어 디자인.



## 편안한 안정감을 주는 MODERN RUSTIC

최근 3년 동안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탁 트인 전원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러스틱 라이프가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다. 이를 현실화할 수 없는 도시 생활자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플랜테리어와 자연에서 온 다양한 인테리어 자재의 활용. 다소 투박해 보일지라도 재가공하지 않고 나뭇결을 그대로 살린 우드 소재 현관문의 등장도 같은 맥락이다.

“마치 숲과 하나가 된 듯한 집을 떠올려보세요. 바깥 풍경과 이어지듯 나무로 이루어진 현관문을 배치하는 것이죠. 이때 마호가니 소재를 택하는 것이 좋은데, 습기에 강한 안정적인 내구성을 지녔고 오묘한 컬러감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리사 슈미츠 Lisa Schmitz 인테리어 디자인의 매니저 웬디 슈미트 Wendy Schmidt가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손잡이를 장착한 도기 소재의 자  
에르메스(본·무).



브라스 소재의 별 장식 오너먼트  
'원터랜드 브라스 스타 라지' 펄리빙 by 짐블랑.



견고한 티크 나무와 라탄으로 만든  
'스틀-내추럴' 피에르 잔느레 by 첵터원.